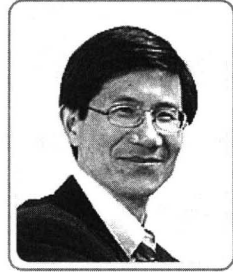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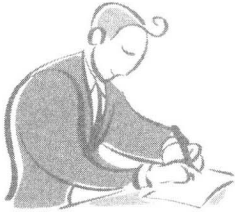


판을 키우자



박 두 용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산업보건분야는 기술적으로 매우 전문적인 분야이다. 산업보건분야를 산업위생, 산업의학 그리고 산업간호 등 전문분야별로 세분하면 더욱 전문적이고 기술적이다. 각 분야를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너무나 전문적이고 기술적이라 전공자가 아니면 쉽사리 접근할 수조차 없다. 산업위생분야만 하더라도 화학물질분야, 분석분야, 소음진동분야, 인간공학분야, 실내오염분야, 생물학적 인자, 산업환기분야 등 대충 크게 분류해도 전문가가 아니면 명함조차 내밀기가 어렵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끼리끼리 노는 경향이 크고, 배타적인 분위기가 강하다. 이런 분위기는 안전까지 포함하면 더욱 강하다. 너는 이 분야 전공자가 아니니 끼어들지 말 것을 암묵적으로 요구하고 나도 그 분야가 아니니 관심을 두지 않겠다는 전통(?) 아닌 전통이 형성되어 있다. 여기에 우리나라의 끼리끼리 문화까지 더해져 안전보건분야라고는 하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좀 심하게 표현해서 콩가루 집안이다. 그러다 보니 산업안전보건분야 내에서 서로간 협력과 교류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서로를 견제하

게 되고, 그 결과 서로 발목을 붙잡게 되기도 한다.

물론 전문분야가 강하다는 것은 장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전문분야에서의 전문적인 사항은 어차피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의 몫이다. 문제는 우리 분야 밖으로 한 발자국만 나가면 이러한 끼리끼리의 문화가 바로 단점으로 작용한다는데 있다. 안전보건분야에서 끼리끼리의 문화는 전공분야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정부와 노동계, 그리고 경영계는 또 다른 문제라고 하더라도 측정기관이나 협회, 그리고 학계, 우리 산업안전공단도 서로간 전략적 제휴나 상호협력은 초보적인 수준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우리 사회의 아젠다가 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가 아닐까?

산업안전은 환경안전, 식품안전, 교통안전, 그리고 재난관리(구조구난)과 더불어 국가의 5대 안전체계를 이루는 매우 중요한 분야이다. 우리나라에서 환경안전은 환경부를 위주로 나름대로 체계를 갖추어 왔고, 교통안전분야도

나름대로 체계를 갖추어 왔으며, 구조구난 체계는 최근 소방방재청의 설립으로 그 기본적인 체계를 갖추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식품안전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설립으로 기본적인 체계를 갖춘 후 각 부처에 흩어진 식품안전관리체계 일원화를 꾸준히 추진해 오던 중 최근 학교 급식에서의 대형 식중독사건으로 식품안전처의 신설 등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등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러나 산업안전분야는 노동행정의 하위체계로 국가의 안전관리체계측면에서 보거나 산업안전관리 일원화 측면에서 볼 때 아직 제대로 된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제 우리 분야도 전문분야의 문제는 각자 끼리끼리 알아서 할지라도 전체적인 문제는 보다 큰 틀에서 접근하는 전략을 세우도록 하자.

국가의 산업안전관리 체계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 재원과 방향은 어떻게 할 것인지, 산재사고를 어느 정도나 또는 어떤 유형정도만 용인할 것인지 큰 틀에서 사회적 합의를 보자고 요구하도록 하자. 직설적으로 말해서 적어도 다음 대선에서는 산업안전문제가 하나의 사회적 이슈로 부각하고, 그래서 중요한 대선공약으로 떠오르도록 하자.

지난 총선 때 국회의원 노회찬은 새까맣게 탄 불고기 판을 이제 바꾸자고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바꿀 판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지금에 판은 너무 작다. 아니 아예 없는지도 모르겠다. 산업안전보건, 판부터 좀 키웁시다. 🍷